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중요쟁점정리

-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변시 기출 및 모의기출 지문의 완벽 정리
-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중요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체득하여 암기
- 기록형 대비를 위하여 민사재판실무의 중요쟁점에 대한 학습
- 변시 기출 및 모의시험 중요지문 매일 복습 테스트
- 한끝민사법(1회독) + 기출지문총정리(2회독), 강의만으로 2회독 효과

일 정

[민법] 4. 29(월) ~ 5. 10(금), 총 11 회,

※ 5. 4(토) 수업 있음 : 오후 2시 ~ 5시 30분

[민사소송법] 5. 13(월) ~ 5. 22(수), 총 8 회

[상법] 5. 23(목) ~ 6. 3(월), 총 8 회

복습용 선택형 시험 오전 9시 ~ 오전 9시 15분 (2회차부터 매일)

강의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교 재

-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저자, 제2판, 근간)
-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저자, 초판, 근간)
- ※ 민사법 전과목(민법, 민소법, 상법)을 수강하는 실강 수강생에게는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교재 및 동영상강의 무료제공

F A Q

Q1.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의 출제경향은 어떠한가요?

A1.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쟁점 위주로 높은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은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민법과 민소법의 통합문제 뿐만이 아니라, 상법까지 연결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전 영역에서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알아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의이의 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와 가처분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쟁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판례가 아직 판시하지 않은 관련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풀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가 있는 사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경향도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i) 선택형에서는 ‘가능하다’를 ‘불가능하다’의 식으로 판결요지를 변형하여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형식은 줄어들고 있고, 설문이 긴 사례식 및 계산식 문제와 통합형 문제를 위주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심화된 지문과 판례를 응용한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형에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 (ii)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된 후에 당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설문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에서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채권양도와 연결되어 출제되고 있고, 기록형에서는 ‘압류 경합의 경우에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라는 쟁점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민사재판실무(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포함)의 중요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F A Q

Q2. 올해 강의 진행방향은 어떠한가요?

A2.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제2판, 근간)과,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초판, 근간)를 기본 교재로 하여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으로 강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민법 7회, 민소법 5회, 상법 4회, 기록형 1회 예상),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로 강의(민법 4회, 민소법 3회, 상법 3회 예상)할 것입니다. 2회독의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므로, 복습 위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강의진도표는 없습니다).

- (i)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제2판, 근간)으로,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쟁점 위주로,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ii)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초판, 근간)는 변호사시험 선택형에 출제된 모든 지문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에 출제된 지문(판례)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출제될 수 있고, 선택형에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 중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의할 것입니다.
- (iii) 2일차부터 수업 시작 전인 오전 9시 ~ 9시 15분 정도까지 선택형 일일테스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일일테스트 문제는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 중에서 학습해야 하는 문제를 선별하여 출제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법전협 선택형 문제를 전부 풀 수는 없고, 풀 필요도 없습니다. 변시 기출문제와 김남훈 변호사가 엄선하여 제공하는 법전협 모의시험 지문만을 정리하면, 선택형 대비로 충분할 것입니다. 일일테스트 문제 중에서도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선택형 강의 시간에 풀이할 예정입니다.

F A Q

Q3.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데 수강할 수 있을까요?

A3. 기본서로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9회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 두꺼운 기본서의 내용 위주로 학습하는 방법은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최신 판례까지 정리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실전용 문제를 연습하면서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훈 변호사가 정리해 주는 교재와 수업 내용을 변시 전까지 철저하게 5회독을 하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Q4. 3과목 실강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이란 교재의 활용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수험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답안지에 적힌 내용뿐이므로,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와 같은 방식으로 답안지에 서술해야 하니, ~~문구로 암기하라”는 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복습 시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와 암기할 문장을 정리하는 용도로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 본 교재는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정리하여 공부하였던 자료를 기초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로 저 또한 고득점 합격을 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의 마무리 교재로 활용하였고,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던 교재입니다. 믿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암기장에 수록된 판례문구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Q5. 강의 내용의 변시에 대한 적응률은 어떠한가요?

A5. 제1회 시험부터 제8회 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은 모두 김남훈 변호사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김남훈 변호사가 매년 출제된 시험 문제 중에서 90% 이상 적중할 수 있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최근 10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재와 기록 및 사법연수원 강의 내용과 시험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의를 진행하면서 준비한 자료들을 기초로 매년 출제경향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재판실무 강의(사법연수원 강의와 유사합니다)와 로클릭 시험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2019년도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민사법과 관련된 학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세미나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사법과 관련된 다수의 학회에서 매년 중요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교수님들과 실무가님들이 현직 출제 위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 세미나에서 쟁점이 된 주제들 중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최대한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사법 강사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자격으로 대학특강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실무가 교수진의 자격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관련된 각종 비공개 세미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중요쟁점정리**

Coaching & Mentoring

F A Q

Q6. 수강생에게 당부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메리츠 자산운용 최고경영자인 John Lee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이미 이룬 사람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합격을 원하신다면 김남훈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LEET시험을 통과하여 법전원에 합격할 정도라면 변호사시험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김남훈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합격에 대한 열망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훈 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만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는 김남훈 변호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민사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 제9회 시험에서도 민사법 전 과목과 전 영역에서 최고의 적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Teaching의 과정”이 아니라 “Coaching & Mentoring의 과정”을 통하여, 김남훈 변호사와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의 하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4. 29. 오전 9시 30분 !!!

내 인생에 몰아친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삶의 무대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만나면

누구나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두 손에 꼭 쥔 열정을 놓치지 않는다면

열정으로 벅찬 가슴을 믿는다면

그 무대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한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